

도시와 농촌의 마을 공동체 탐색: 성미산 마을과 홍동 사례

신효진*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성미산 마을과 홍동의 사례를 탐색하였다. 공통의 관심사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인 실천공동체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마을 활동 속에서 학습과 지식을 창출하는 마을공동체와 연관성이 높다. 이에 구성원간의 관계와 공동 실천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미산 마을과 홍동을 대상으로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성미산 마을과 홍동의 마을주민들은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의 의미를 생성하고 또 성찰하며 이를 부단히 ‘마을하기’에 투영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마을주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은 대안적이며 생태적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켰다. 한편, 소규모 마을모임과 단체, 기관들의 존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역할 하는 동시에 마을이 규모화되고 외부에 빈번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을 안의 면대면 관계에 비롯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어 : 성미산마을, 홍동, 공동체, 마을 만들기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아이쿱펠로우 연구교수(hyojin.shin21@gmail.com)

An Exploration o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Sungmisan and Hongdong community

Shin, Hyo-Jin**

| Abstract |

Hongdong community and Sungmisan community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restore the meaning of commonality of community in a crisis of dissolution based on various cooperatives and small organizations, and reorganize the area into a space of reciprocity and cooperation. The experiences of co-operatives and community making under completely different regional conditions, such as rural and metropolitan cit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of Practice.

Key words : Sungmisan, Hongdong, community, community making

** iCOOP Fellow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hyojin.shin21@gmail.com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회복 운동이 주목받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김세용 외, 2013). 1990년대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는 2000년 들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도시 재개발 정책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 아래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두드러진다(황익주 외, 2016). 여기서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통용되는 의미보다는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위기(사회 양극화, 범죄 불안, 주민 간 갈등 등)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이자 해결방안으로 읽힌다. 이는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나타난 가족의 해체 현상, 개인주의의 심화, 사회적 관계망의 생긴 변화에서 나타난 한계를 과거 전통사회의 ‘동네’와 ‘이웃’이라는 지역 중심 관계로부터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communitiy)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보통 정주(settlement)의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박은복·박정란, 2019). 정주를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생산, 소비하는 존재로 움직이는 구성원들은 개인의 단위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한다. 도시의 대표적인 마을로 호명되는 성미산 마을과 농촌의 특색과 공동체의 결합이 어우러진 마을로 손꼽히는 흥동. 대도시 서울과 먼 단위 농촌이라는 전혀 다른 지역적 조건 위에 이루어진 두 마을은 각각 도시와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미 두 마을과 관련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성미산 마을의 경우 성미산 마을의 형성과정(이경란, 2013; 기영화 외, 2013; 박경옥·정지인, 2015; 김동완·신혜란, 2016), 성공 요인 분석(김철화·하혜수, 2016), 시민사회 정치 참여(김대영·장혜영, 2020) 등은 물론 공동체 주거(박경옥·류현수, 2012), 생협(김홍주 외, 2013) 등 성미산 마을 내부의 새로운 시도와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구 등이 있다. 흥동을 다룬 연구들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와 내부의 사회적 관계망 확인(김정섭, 2014; 정지인·박경옥, 2015; 황바람, 2017; 김정섭 외, 2019) 풀무학교로 대표되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연구(양병찬, 2008; 강영택·김정숙, 2012; 김정숙·강영택, 2013)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으로는 마포구의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르고 있으며 해발 66미터의 성미산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미산 마을은 양육환경에 대한 불만, 추구하는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를 느낀 사람들이 개인의 차원이 아닌 공동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공동육아 다음 단계의 학교가 필요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생협, 마을극장, 마을카페 등을 만들며 마을의 역할을 확

대해왔다. 홍동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과 그 옆 장곡면이란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8월 기준, 인구 약 3,400명인 작은 농촌마을은 연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유기농업, 협동조합과 공동체, 대안교육 등을 배우기 위해 찾는 곳이지만, 조직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거나 수십 채의 집이 군락을 이루고 그 주위로 생활의 터전이 되는 논과 밭이 펼쳐지는 그런 이상적인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을과 학교가 서로 돕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씨실과 날줄을 엮으며 꾸려오고 있다.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대응하며 일상생활에서 삶과 실천을 함께 추구해왔다. 각각의 공동체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공동체가 태동한 시기는 물론 지리적 조건과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모두 마을이 근본적인 삶의 터전이자 학습이 실천되는 장(場)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삶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한 실천과 학습은 마을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마을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을 만들었고, 이는 마을을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호참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통해 마을공동체는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성미산 마을과 홍동의 마을공동체 궤적을 실천공동체의 관점으로 바라보려 한다. 실천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사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Wenger, 1998). 마을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단련교실이 아닌 마을 활동 속에서 학습과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실천공동체의 주요 특징과 관련성을 갖는다.

Wenger(1998)에 의하면 실천공동체는 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우리 모두는 자신이 속한 생활 세계의 사회구성원으로 하나 이상의 실천공동체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 학습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이 발생하는 상황과 분리되어 개인적으로 인지되는 과정이 아니다. 모든 지식은 상황과 분리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으며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구현된다. 즉 학습은 상황화된(situated) 세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즉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학습활동과 지역 사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한 상호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달성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형성이 정책 과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오늘날 성미산 마을과 홍동의 공동체 형성 과정, 공동의 실천지식이 생산되는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마을공동체 형성의 요인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배경을 가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과 충남 홍성군 흥동면, 두 곳은 다양한 협동조합과 소규모 조직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그 지역을 호혜와 협동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면 단위 농촌과 대도시라는 전혀 다른 지역적 조건에서 이루어진 협동조합-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경험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탐색하려 한다. 이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출발점이 되어 도시형 마을공동체를 이룬 성미산 마을과 풀무학교라는 교육기관과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농촌형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홍성 흥동면의 형성 과정과 작동의 요인을 새로운 맥락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사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성미산마을과 흥동을 실천공동체 맥락에서 탐색하며, 지역 단위의 협동이라는 차원에서 마을공동체가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실천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려 한다. 실천공동체를 이론적 배경이자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성미산 마을과 흥동의 사례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는 한편, 과거 언론 기사와 인터뷰 기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연구 자료로 삼지 않았다. 학계와 언론에 다수 노출되어 응답자들의 답변이 구조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동안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작성한 원고와 과거 언론 기사와 인터뷰 기사를 사용해 재구성하였다. 언론 보도자료 중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성미산 마을과 흥동을 주제로 한 자료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2000년 이후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통해 전국 종합일간지와 지방 종합일간지에서 성미산 마을과 흥동을 다룬 기사를 검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실천공동체의 의미와 선행연구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 개념은 초기 도제관계 속 작업집단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이후 Wenger(1998)는 실천공동체 개념을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학습이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관심사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실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속한 생활 세계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하나 이상의 실천공동체 속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천공동체는 다양한 인간 삶의 영역에서 공통의 과제,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데 유용한 삶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양홍권, 2011). 실천공동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참여의 체험이 의미로 구현되지 않으면 실천공동체로 지칭하기

어렵다.

실천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지역은 참여자들의 삶터이자 학습이 실천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소통의 장이자 학습의 장이며 공생의 장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community)가 지역이기 때문이다(김종선, 2018). 성미산마을과 흥동에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마을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참여하며 함께 학습하고 성장한다. 실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가 요구되는데, 이를 마을 공동체의 맥락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웡거는 실천공동체는 문제를 정의하는 주제 영역(domain), 주제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공동체(community), 공동체의 실천(practice)을 기본 구조로 하며, 실천공동체의 세 가지 핵심속성으로 공동업무(joint enterprise), 상호적인 참여(mutual engagement), 공유된 레퍼토리(shared repertoire)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 영역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속감을 느끼면서 활동하는 공간이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 공동체 활동으로 개발되고 얻게 되는 실천 지식과 실천은 공동의 자산이 된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지식과 역량이 향상되고, 그렇게 향상된 역량과 지식이 다시 공동체 참여로 연결되는 실천공동체의 특성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윤규 외, 2013; 김형미, 2016; 김아영 외, 2018; 김선화·장승권, 2019).

사회적경제와 실천공동체의 연계성을 살펴본 박윤규 외(2013)의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생협 조직인 아이쿱생협이 인트라넷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식경영을 실천해 온 사례를 다루고 있다. 자발적인 학습과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기존의 방식처럼 구성원들에게 지식공유를 강요하거나 인센티브에 따라 억지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지식경영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김아영 외(2018) 역시 아이쿱생협, 특히 지역생협 이사회를 하나의 실천공동체로 보고, 조합원 이사들이 실천공동체에 참여해 역량을 개발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협동조합 경영이라는 공동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이사들과 서로 관여하고 활동 문화를 익히고, 참여와 경험 속에서 의미를 협상해 가는 조합원 인사들은 여러 차원의 관계를 구성하며 실천을 지속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김형미(2016)는 일본의 소비생활협동조합 코프 아이치의 조합원 활동이 주민복지활동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의 의미와 노하우를 지역사회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짚고 있다. 특히 조합원 활동 모임에서 쌓인 경험지식과 실천지식, 신뢰, 마음가짐 등이 실천공동체에 요구되는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장승권(2019)은 두레생협 조합원들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를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외 연수가 이뤄진 필리핀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학습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학습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한편, 학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실천공동체의 첫 출발이 공동의 관심사로 모이는 주제 영역의 형성이라 할 때, 구성원들의 자

발적인 참여와 공동의 관심사, 필요에 바탕하여 작동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실천공동체 관점을 가져가기에 적합하다. 특정인의 주도가 아닌 구성원간의 관계와 공동 실천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천공동체의 맥락에서 성미산 마을과 흥동을 들여다봄으로써 주제 영역(domain), 공동체(community), 실천(practice)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성미산 마을과 흥동 선행연구

도시와 농촌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 사례로 주목 받고 있는 성미산마을과 흥동은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주된 요인에 대한 분석,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의 맥락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협동의 사례와 공동체 내에 작동하는 원리를 확인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동체 형성의 과정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흐름이 있다. 이경란(2013)은 성미산 마을의 형성이 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학습하는 실천적 학습법의 일상화 속에 비롯되었다고 본다. 기영화, 김승현, 김남숙(2013)은 성미산 마을은 개인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외연화시키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때 끊임없는 회의와 친목모임을 통한 주민간의 접촉이 마을에 대한 애착과 기대, 만족감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박경옥·정지인(2015)은 성미산 마을 거주자의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동체의식에 있어 거주동기가 중요한 변인이며, 공동체의식은 이웃과의 교류, 마을활동 참여로 강화되며 이는 또한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등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김동완·신혜란(2016)은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성미산 마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보육, 교육, 주거, 환경, 산업의 다양한 장에서 나타난 저항이 성미산 마을의 대안적 삶의 실험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성미산 마을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연구도 볼 수 있다. 김철화·하혜수(2016)는 Woolcock의 사회자본 분석틀을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미산 마을의 성공은 보육, 교육, 생협 등 생활 이슈를 바탕으로 구성원 내부의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 특히 외부와의 적극적 연계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 주거 사례를 연구하거나(박경옥·류현수, 2012), 울림두레생협의 돌봄사업이 지역 안에서 작동하는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김홍주 외, 2013)가 이루어졌다.

흥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들여다보는 작업과 함께 흥동에 변화를 가져온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정섭(2013)은 흥동의 협동조합을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일종으로 보고 협동 운동의 배경 속에서 이상촌 또는 지역사회라고 이야기되는 주민들의 담론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이 협동조합운동의 결과이자 그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정지인·박경옥(2015)은 공동체 구성요인

지역성과 공동체성의 측면에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과 후주민이 필요로 하는 활동과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모색이 필요함을 밝혀냈다. 황바람(2017)은 홍동면에서 일어나는 협업 활동을 관계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사회연결망을 분석한다. 그 결과 교류 활동이 전체 연결망의 절반을 차지하며 교육 활동에서 단체들 간의 직간접적 연결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홍동 지역 협업활동 연결망의 핵심 단체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김정섭 외(2019)는 홍동면과 장곡면 지역의 주민을 인터뷰하고 참여관찰하여 지역의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어떻게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 지역의 서사 변화 속에서 변화하며, 그렇게 지역사회 발전 과정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홍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의 중심지인 풀무학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선행연구가 다수 확인된다. 양병찬(2008)은 풀무학교와 지역과 관계 맺는 교육공동체 운동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교육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내발적 역량을 강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강영택, 김정숙(2012)은 풀무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의식 아래 자원을 서로 공유하며 마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다. 풀무학교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이후 김정숙·강영택(2013)은 풀무학교 전공부 출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체의 형성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탐색한다. 학생들이 2년의 학습 과정에서 더불어 사는 삶과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농촌, 농업의 의미를 인식했기에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기대하며 관계 맺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성미산마을과 홍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요인들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당사자의 참여와 상호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맺음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의 탐색은 마을공동체 작동의 원리를 들여다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성미산 마을과 홍동의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다.

III. 도시와 농촌의 마을 만들기 탐색

오늘날 도시와 농촌에서 일정한 역사성을 공유하며, 기본적인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는 마을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농촌에서조차 소비행태가 인근 도시의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바뀌고, 교육과 문화 활동은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면서 마을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마을공동체 사례는 마을주민이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조정하고, 단체나 기관을 형성하면서 다시 마을의 영역을 구성하고 확장해 왔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선 알아보려 한다.

1. 성미산 마을

자녀가 있는 많은 부모는 육아와 자녀교육이 더욱 수월한 곳으로 이동한다.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은 어린이집에서부터다.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보육,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듯하다. 일찍이 “국가도 시장도 못 해주면 우리가 직접 한다”(유창복, 2009)는 부모들의 의지에 힘입어 직접 동원한 자금(출자금)으로 어린이집의 터전 마련과 시설 설비 등을 진행한 이들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성미산 마을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인근 지역에 두 번째 공동육아협동조합 ‘날으는어린이집’이 설립된다.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려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한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아이들만큼 부대끼고 관계를 맺는다. 부모 교육과 친목 행사, 취미 소모임 등은 참여자들을 육아공동체를 넘어 생활공동체로 연결하는 계기를 만든다(박미현, 2011).

하지만 공동육아가 도구적 수단을 넘어 생활공동체가 되더라도 육아라는 목적에 매여 있다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아이들의 학교 진학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이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교실과 학교까지 운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5년여의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과 어린이집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을 지역사회 공부방으로 확장하여 지역사회에 이질적인 존재였던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드러낸다(위성남, 2013).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넘어 지역사회를 인식하게 된다.

방과후교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파악한 부모들은 동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른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먹을거리라는 가장 친숙한 매개체로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2001년 마포두레생협 창립으로 이어진다. 생협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활재 공급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활동과 그 안에서 이뤄진 빈번한 사람과 사람 간의 마주침은, 생협을 조합원의 활동 터전으로 자리매김하여 조합원 일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공동육아는 성미산 마을이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이긴 했지만, 마을공동체가 단단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 2차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있었다. 학교법인 한양재단의 아파트 건설과 서울시의 배수지 사업으로 연결된 성미산 개발을 막아낸 1차 성미산 지키기 운동은 2001년부터 약 2년간 이어졌다. 성미산 정상에서의 천막 농성, 주민 촛불집회, 서울시장 및 마포구청장 면담, 성미산 숲속학교 운영 등에 여러 주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해 결국 배수지 공사 중단을 끌어내며 주민들은 성미산 지키기에 성공했다. 2001년 5월 한겨레신문의 ‘더불어 만들고 함께 노는 마을축제’로 기사에서 ‘성미산 마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성미산지키기 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을 성미산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서울시와 마포구 또한 성미산 마을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성미산 지키기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의 상징을 얻었다는 것

이다. 마을 주민들은 익명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산다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이경란, 2004). 성미산 마을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성미산 마을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내부에서 이러한 의식은 점점 높아졌다.

1차 성미산 지키기 이후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단체들이 하나, 둘 설립되면서 성미산 마을과 지역사회의 접점이 깊어져 갔다. 한편, 중등 교육 기관인 성미산학교 설립으로 유아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기를 마을에서 함께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인프라가 성미산 마을 내부에 구축된다.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학교”라는 성미산학교의 교육 목표에는 성미산 마을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다. 성미산학교의 설립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로 출발한 마을의 특성상 어린이집이나 성미산학교를 보내기 위해 이주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성미산 마을은 공동육아에서 시작하여 생활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로 확장되는 마을공동체로 볼 수 있다.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한 온 마을의 지원이 마을주민의 함께돌봄, 적절한 지역환경과 지역자원의 형성으로 나아갔으며 이는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부모, 더 많은 마을주민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2. 흥동

지금까지는 현대문명의 총아인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도시교육, 선발교육, 물질교육, 간판교육, 출세교육에서 이 인간이 멸망하고 이 민족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새 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총아일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촌교육으로, 민중교육으로, 정신교육으로, 실력교육으로, 인격교육으로, 이 민족을 소생시키고 이 인간을 새로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찬갑(1958.4.23.) 풀무학교 개교를 맞이하면서

대안 교육, 유기농업, 공동체(협동조합). 세 가지 굵직한 키워드는 흥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이다. 오리농법 등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익숙한 흥동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와 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흥동이 이처럼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민조직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바탕에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풀무학교)가 있다. 1958년 설립된 풀무학교는 새로운 교육과 문화를 수립하는 마을의 진지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의 학교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정거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교생 84명(2020년 기준)의 작은 풀무학교는 지역사회를 열린 교과서이자 교실로 여기는 학교의 정신을 구체화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풀무학교 초기부터 교사와 학생들의 실험은 마을과 닿아있었다. 1959년 9월 풀무학교에 문을 연 소비자협동조합 구판장은 문구류와 비누 등 약간의 생필품을 흥성과 예산 등에서 도매가격으로 사들여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였다. 20년 후인 1980년, 학교의 구판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풀무생협으로 이어졌다(마을교육공동체소식 풀꽃, 2020).¹⁾ 1969년 전국에서 실험이 몇 안

되던 시절, 풀무학교의 교사와 졸업생에서 시작된 풀무실험은 이제 홍동면의 ‘우리동네 은행’으로 역할하고 있다. 풀무학교에서 진행한 협동조합 실험이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풀무학교는 이를 과감히 지역사회에 넘겨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해왔다. 또한 풀무학교 학생들은 그 실험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농촌에서 자아실현을 모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웃과 나누고 협동하는 보통 사람을 길러내는 풀무학교의 교훈(더불어 사는 평민)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실천 속에 비롯되어 지역과의 관계 유지로 이어지고 있다. 때론 풀무학교의 실험 중 도서관, 농기계조합, 식가공조합처럼 중간에 문을 닫고 사라지는 조직들도 있었다(이병영, 1999). 중요한 사실은 풀무학교와 마을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 홍동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의 의제를 학교가 찾아 건네고, 이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채워간다는 것에 있다.

유기농업으로 홍동면을 변화시킨 배경에 역시 풀무학교가 있다. 한창 정부가 식량 증산정책에 집중하던 1960~1970년대 풀무학교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유기농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시작은 1975년 일본 애농회(愛農會) 고다니 준이치 회장과 교류에서 비롯됐다. 풀무학교는 그가 다녀간 다음 해부터 유기농업 교육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산 위주의 정책과 소득 지향의 경제체제 확산으로 유기농업은 보편화하지 못한다. 그러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기점으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농법이 재조명되었다. 이때 홍동은 전국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한(1992년)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된다(마을교육공동체소식 꽃꽃, 2020). 홍동은 전국 최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이자 유기농업이 발달한 대안농업 추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홍동면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홍동면 주민자치센터는 마을의 자랑으로 전국 최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 유기농업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강조할만큼 풀무학교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은 마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들어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이 아닌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흐름에서 대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풀무학교에 대한 주목으로 이어졌다. 진정한 교육은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홍동은 갓골어린이집,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초중고교부터 대학(전공부), 평생교육(밤뫼도서관, 마을학회 일소공도)까지 하나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공립학교인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와 함께 지역 안에 완결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 마을엔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다. 외부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투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필요를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충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모른다. 실제로 생산과 소비, 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홍동 안에 존재한다. 이는 외부조직이나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어느 정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홍동이 추구하는

1) 참고로 풀무생협은 2012년 생산자 조합원들이 품목별 영농조합으로 분리하고 소비자 조합원들은 홍성읍에 판매장을 개설하면서 공산품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으로 환원했다. 당시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부채와 상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현재 풀무생협 조합원은 1,500여 명에 달하며 2013년 홍성읍으로, 2020년 내포신도시로 진출하여 다시 협동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이병영(2020.7.6), “풀무학교서 한국 첫 협동조합 출발”, 홍성신문,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55>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그 구조 속에서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현재 홍동 지역(장곡면 일부 포함)에 34개의 협동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풀무학교의 협동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34개의 독립적인 협동조직은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연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소위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도 그러한 역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작은 조직들은 홍동 주민들 간의 면대면 접촉을 가져오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풀무학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열려 있어 일찍부터 타지역 출신 풀무학교 졸업생 중 일부가 홍동면 일대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속적인 젊은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은 홍동에 ‘ㅋㅋ만화방’이나 ‘딸’(마을 주점)처럼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마을의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에 따라 계속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홍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촌에서 농사 외에도 농업 관련 활동이 다양하며, 농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홍동이 만들어진 대안 공동체는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빈번히 호명되고 있다.

IV. 실천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구조 확인하기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공동체 구성요소인 주제 영역(domain), 공동체(communitiy), 실천(practice)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현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1. 주제 영역 : 마을경제로 새 틀 짜기

주제 영역(domain)은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주요 사안이나 문제점들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어 공동의 입장과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공동체의 목표 및 요구와 구성원들의 열정과 기대가 서로 교차할 때 가능하다. 주제 영역은 공동체와 개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미산 마을과 홍동을 들여다볼 때 두 사례는 마을주민의 생산과 소비, 고용을 ‘친환경’, ‘대안 생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마을공동체를 경제 및 생활공동체로 외연을 확장시키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성미산 마을은 공동육아, 홍동의 경우 유기농업과 협동조합에 마을공동체의 근간을 두고 있지만, 시간의 경과 속에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의 목표와 마을주민들의 소망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성미산 마을

아이를 함께 키우려는 사람들이 성미산 인근에 함께 살면서 시작된 성미산 마을의 형성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이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마을이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한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서 어른들을 위한 활동으로, 다시 공동체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옮겨가고 순환하는 모습은 어느 공동체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성미산 마을의 특징은, 마을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 생활의 필요에 따라 다종다양한 단체들을 함께 만들며 공공의 영역을 구축해갔다는 것이다. 육아와 교육에 열려있고, 환경친화적인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미산 마을 주민들은 자연스레 더 오래 마을의 주민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1년 두레생협의 시작을 기점으로 마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동네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출자되고, 시간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운영을 책임지는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등장하였다. 두레생협이 취급하는 생활재의 공급망은 동네 안팎으로 다양한 대안 경제활동의 거래망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가을 시작된 반찬가게 동네부엌이다. 동네부엌은 생협에 이은 성미산 마을의 두 번째 마을기업으로 초기 자금 4천 5백만 원과 6평 규모의 매장이 마련되면서 시작됐다. 생협 조합원의 출자로 설립되었지만, 생협의 조직적 지원 없이 동네 엄마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동네부엌은 운영되었다. 이때 마을 주민들이 생산자로 등장하게 된다. 마을 안에서 마을주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경험이 쌓여갔다.

한편, 성미산 마을에서 시도한 카센터 사업체인 '차병원'은 차량 수리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모두 순정품을 고집하면서 일반 카센터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조차 귀중한 경험이 된다. 성미산 마을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이어졌다. 마을이 당면한 문제에 몇몇 개인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현장에서 학습된 경험을 상호 간에 공유하고 성찰하며, 집단지성으로 해결해가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경제 영역에서 구축되면서 마을주민들은 마을활동가, 주민 강사 등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그렇게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마을 안에 적지 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5가구가 조용히 첫발을 디딘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지역의 이방인으로, 섬으로 존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 마포두레생협, 성미산 차병원, 성미산 학교...새로운 이웃이 생겨나고, 우리 아이들이 이웃으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점점 넓어지고 커져갑니다. 넓어진 표면적으로 생활과 이웃과 지역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섬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역이 되었습니다

- 성미산 마을 만들기모임멋진지렁이·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2005)

소수의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 아닌 기존 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우리’가 확고되고 그 우리가 ‘지역’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성미산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마을카페 작은나무 협동조합(그늘나무, 2004년), 되살림가게(2007년), 비누두레(2008년)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문턱없는밥집, 2007년), 그리고 마을 안에 장애-비장애 통합을 지향하는 청년들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성미산공방(2011년), 좋은날협동조합(2013년)이다. 초기 동아리 수준의 활동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대부분 마을주민들의 출자와 참여로 만들어져 마을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 서울은 생산의 도시가 아니라 소비의 도시라고 말한다. 먹거리를 비롯한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 성미산 마을은 마을 안에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마을에서 자족 기능을 갖게 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 방식, 운영 방식, 협력 방식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흥동

흥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는 지난 60년의 궤적 속에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풀무학교의 역할이 크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라는 긴 이름을 가진 풀무학교는 흔히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산업 분류로 구별되는 농업을 가르친다기보다 농업을 근간으로 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의 관계에 주목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풀무학교가 마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변영은 풀무학교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주옥로가 당시 지역주민과 발기인회를 구성해 학교 추진 모임을 결성했으나 회원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모임을 결렬한 뒤 혼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고 밝힌다(이변영, 1999). 그렇게 설립된 초기의 풀무학교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외면 받았다. 이변영은 당시를 회고하며 “만들어놓고 무너지면 다시 만들고 무너지면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여,” “한 때는 마을에서 모스크바라고 불리고 학교 간판도 내팽개쳐지기도 했으나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서 시작한 실천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마을로 내보내 주민을 실험 조합원으로, 생협 조합원으로 이용케하면서 서서히 학교와 조합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김형미, 2012 재인용).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교육하고, 마을이 필요로 하는 ‘마을사람’을 배출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학교와 마을이 신뢰 이상의 관계를 쌓게 된 것이다. 그렇게 풀무학교와 마을은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풀무학교는 마을과 함께 움직인다. 지역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생협을 시작했으며, 금융기관을 설립했다. 특히 풀무학교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온 주요한 사례로 풀무신흥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당시 농촌의 고리대금 연이율은 49%에 이르렀을 정도였는데 풀무신흥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5만원~10만 원의 소액융자로 농촌의 오래된 고리대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조합원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와 사업에 주력하여 조합원의 기생충검사, 가족방역사업, 유기축산사료 공

동판매 등 지역의 절실한 필요를 실험의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김형미, 2012). 풀무실험을 이용하며 협동을 통한 편익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민주적인 운영에 기반한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인한 지역주민들은 이후 각종 지역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다수 추진한다.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가 된 흥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을’을 표방하며 본래 있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안에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다. 학교는 하나의 작은 마을로 학교의 실험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참여 유도으로 이어지고 마을에 정착되어 갔다. 기존의 농촌에서 시도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이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추진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풀무학교와 지역에 배출된 졸업생들이 있다(젊은협업농장, 2013). 친환경농업을 비롯하여 풀무실험, 풀무생협, 도서조합, 농기계조합, 대체에너지연구소 등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시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후반 문당리, 금평리 등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한 활동의 연속선에서 2000년대 이후 윤월리를 중심으로 풀무학교생협, 느티나무 헌책방, 밝맑 도서관 등 창의적인 활동이 지역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낮에는 농사짓고 저녁에는 공부에 모두 바쁘다. 이는 일과 학습의 병행되어 작동하는 흥동의 특징이기도 하다. 2018년에는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는 일소공도 마을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도 역시 일과 공부를 함께 해야 하는 풀무학교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흥동은 일주일 내내 각종 공부 모임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모임은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평민마을학교이다²⁾.

2. 공동체 : ‘나’와 ‘우리’가 하나 되기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은 주제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고 배우고 또 관계를 쌓는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성원들은 ‘관계맺기’로부터 공동체의 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한다(양홍권, 2011).

성미산 마을과 흥동은 강고한 규율이나 강력한 중앙조직이 없다.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관계는 자연스럽고 느슨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대응 또한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정적일 수 없다. 이때 두 마을공동체 안에 활동하는 수십여 개의 작은 단체와 모임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되어 마을을 언제, 어디서나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을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채워진 두 마을공동체는 ‘나’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중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뒷받침된다.

1) 성미산 마을 : 느슨하되 살가운 공동체

2) 평민마을학교 안내문의 첫 소절은 다음과 같다. “평생 배우고 일하며 협력하는 지역, 돈과 경쟁이 아닌 휴과 공동체의 가치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마을의 사람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아래로부터 이뤄가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육아공동체를 넘어 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과 마을주민들이 더 넓은 관계망을 만들게 된 계기에는 두 차례의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있다. 1차 성미산 지키기 운동(2003년)은 주민들이 생태 공간인 성미산을 허물고 배수지를 만들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그마치 2년여를 매달려 얻은 값진 성과였다. 2003년 1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기습 벌목 사건 발생 이후 주민들은 성미산 정상에서 철야 농성을 하며 성미산을 지킨다. 그 긴 시간, 성미산을 지키던 천막 안에서 마을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카센터(성미산차병원, 중단), 대안학교(성미산학교), 카페(작은나무) 등- 가 언급되고 이후 마을에 이를 직접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진다(유창복, 2010).

2010년 무렵 홍익재단이 성미산 인근 부지에 학교를 짓는다고 나서면서 찾아온 두 번째 위기는 앞선 1차 성미산 지키기와는 사뭇 다른 전개양상을 보인다. 사실상 홍익재단의 학교 이전 건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주민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치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자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를 바꿔보고자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동시에 2010년 지방선거에 주민 후보를 출마시켰다. 2002년에도 성미산 지키기 일환으로 지방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킨 적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위한 홍보수단의 성격이 더 강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행정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성미산 마을 안팎을 둘러싼 정치의 맥락을 확인하게 된다.

두 차례의 성미산지키기 운동은 우리 마을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결집시켰고, 이는 성미산 마을의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실패할 리 없다는 ‘불패 신화’, 실패하면 좀 어떠냐는 ‘끝없는 낙관주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적재적소에서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이 터져 역전의 도화선을 마련할 거라는 ‘정시도착의 신화’가 마을 주민들의 성미산 마을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하게 된다(유창복, 2009).

마을공동체에서의 관계맺기가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원한다면 함께 나와서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중요하다. 성미산 마을은 이러한 기회를 생활 속 문화로 만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겨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해 2001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진 마을축제는 2007년 마을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다. 프로젝트성으로 만들어진 축제 공연 팀들이 다수 참여한 당시 마을축제에서 일회성 공연에 마을주민들은 아쉬움을 느낀다. 이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마을주민들은 동아리를 만들고, 동아리가 활동할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성미산 마을극장을 개관하였다(2009년). 마을축제가 마을주민들이 문화생산자가 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극단, 풍물패, 마을합창단 등 좋아하는 일로 모인 마을주민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는데, 이는 성미산 마을을 매끄럽게 만드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재미로 시작한 모임에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관계가 쌓여가며 이는 또 다른 공동체를 상상하는 기회가 된다. 현재도 책모임을 비롯해 합창단, 오케스트라, 풍물패, 마을밴드, 마을극단, 등산모임 등 19개의 동아리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일찍이 성미산 마을은 누구나 들어와서 참여 할 수 있고 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다

양성이 주어진 자율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 사람들은 공동육아를 하는 어린이집이나 성미산 학교를 선택하고 성미산 마을을 찾는다. 하지만 성미산 마을은 회원제 형태로 결합하는 조직이 아니며 열려 있는 구조이다. 성미산 마을의 주민들은 외부에서 공동체라는 성미산 마을에 대한 환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 역시 똑같이 싸우고 때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주장만 고집하려 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내 아이, 우리 가족만을 위한 목적으로 친목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목적으로 한마음이 되려고 부단히 시도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인다(엄지혜, 2013). 신앙공동체와 같이 철학과 신념을 완전히 공유하는 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에서의 활동의 역동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마을은 주거 공간 속에서의 마을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호회도 마을이고 성적 소수자들의 긴밀한 커뮤니티도 마을이며, 신촌과 홍대 앞의 문화예술인들도 마을이고, 환경단체의 회원들도 마을일 수가 있다. 그 커뮤니티가 폐쇄적이든 개방적이든 상관없다. 자기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은 그들만의 리그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성미산 마을은 문화와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접속이 가능하며 열려있다

- 위성남(2013)

그래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느슨하되 살가운 공동체이다. 상호작용의 밀도는 높다. 성미산 마을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 마포희망나눔은 성미산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이나 조손가정을 찾아 집 청소, 의료, 정리정돈 등을 하는데, 공공도 시장도 책임지지 않는 지역의 빈 공간을 채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습에 주민들도 반응을 보이고 변화하기 시작했다(이동고, 2019). 이러한 사례는 또 있다.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은 마을의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조활동을 지원하고 마을의 조력자들과 연결하며 성미산 마을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 자유롭지만 고립되고 싶지 않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성미산 마을의 여러 모임과 단체들은 통해 채워진다.

성미산 마을이 걸쳐져 있는 행정구역의 주민들 모두가 성미산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성미산 마을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은 마을 안에서 스스로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누군가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와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기회와 자리가 좀 더 많다는 것이 도시공동체, 성미산 마을의 특징이다.

<표 1> 성미산 마을 공동체 현황

경제공동체	올림두레생협, 마을카페작은나무협동조합, 되살림가게, 비누두레,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성미산공방, 좋은날협동조합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문화교육 공동체	성미산학교, 성미산문화협동조합, 마을예술창작소 공간릴라, 동네책방 개똥이네 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살판, 마포공동체라디오
자치공동체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 마을회관, (사)사람과마을

출처 : 성미산마을 홈페이지(<https://sungmisan.org>) 자료 기반으로 재구성

2) 흥동 : 배움과 경험의 공동체

흥동은 농촌사회 공동체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혈연과 지연으로 구성된 주민들간의 전 인격적인 유대 관계, 공유된 신념과 가치관이 존재하는 곳이다. 김창진(2019)은 흥성 지역은 두레나 계와 같은 협동정신과 실학의 전통이 강해 일제 강점기부터 농촌개혁운동이 활발했으며 역사적으로 사회자본이 꽤 축적되어 있었다고 서술한다. 일반적인 농촌사회의 모습과 다른 점은, 흥동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외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마을 변화의 접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찍이 풀무학교는 일본, 유럽 등과 활발한 국제교류로 해외 단체로부터 교사 파견 등 인적,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의 봉사단체인 VIA(Volunteers in Asia)로부터 영어 회화 강사를 10여 년간 파견하는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김이경, 2019). 이러한 풀무학교의 유연함이 흥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은 새로운 방식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흥동이 활력을 잃지 않고 유지되는 배경에는 농촌의 중심이 되는 농업을 중시하는 일꾼들이 풀무학교와 마을 곳곳의 교육 현장에서 길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형상의 성과 못지않게 풀무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다. 풀무학교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농촌 생활에 대한 긍지를 갖고, 새로운 가능성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 온 이들에게는 귀농버전의 수저론이 있다. 고향이 농촌이고 부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엔 ‘금수저’, 연고도 기반도 없으면 ‘흙수저’로 불린다(이재덕, 2020). 흥동은 귀농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외지인에게 개방적이다. 그리고 이들을 공동체에 포용하려는 움직임도 돋보인다. 흥동에서는 지역에 유입되는 새로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귀농인을 위한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이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새로운 농업 실천 방안의 모색과 함께 지역성이 두드러지는 지역농민단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농사일이나 흥동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들이 함께 농장에서 일하며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정 기간의 교육이 마무리되면 독립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귀농인들이 마을과 첫 접점이 형성할 때부터 유대감을 갖고 협동의 가치를 확인하게 한다. 흥동의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

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새롭게 터를 잡은 이들과 기존 주민 사이의 간극은 존재한다. 마을주민 중 일부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애를 낳고 하니가 농촌에서 그나마 애기들 구경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지역민들이랑 희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귀농인들이 홍동을 잠식한다,’ ‘똥똥 뭉쳐서 지들 살 궁리만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야. 귀농인들도 모임이 있고 하면 원래 있던 식당까지 골고루 이용해주면 좀 희석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라고 말한다(마을활력소, 2016). 홍동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거리축제는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으로 선주민과 후주민(귀농인)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물론 공동체의 노력만큼이나 새롭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를 그냥 사람 사는 동네로 생각하고 오면 쉬운데 ‘홍동은 이런 마을이야 이래야만 돼’라는 자기 설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은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시골이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공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 다큐멘터리 3일 홍동 사람들이 사는 법(2017.6.25.) 506회 중 금창영 씨 인터뷰 내용

한편, “농촌은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다. 농사지를 농토와 집이 있어도 귀농자가 막상 지역에 살려면 유통, 교육, 금융, 복지, 의료, 문화 모두가 걸린다. 지역은 산업으로서의 농사를 포함한 유기체라야 한다”(홍동마을사람들, 2014)는 생활세계에 대한 직시는 농사만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낼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홍동에는 마을에 위원회나 수직적 조직이 있어 기존의 조직을 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든다. 귀농인을 포함한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민간조직은 자생적인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011년 개관한 밝맑도서관은 문화로 마을을 만들어가려는 홍동의 시도에 있어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풀무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마을도서관인 밝맑도서관은 216명의 마을주민,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문을 열었다. 2007년 12월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창립대회를 열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지 4년 4개월 만에 도서관이 준공되었다. 개교 50주년 도서관을 풀무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 짓기로 한 것은 학교 안에 있으면 학생들만 이용하지만 동네 한 가운데 있으면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밝맑도서관은 책만 있고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인문강좌는 물론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고, 주민과 마을을 이어주는 곳으로 밝맑도서관은 나아가 유기농, 생태공동체에 관심 있는 국내외 여러 단체 등과 정보 교류도 활발하다.

<표 2> 홍동 공동체 현황

경제공동체	풀무생협, 풀무학교생협, 협동조합카페 뜰, 갯골목공실, 할머니장터조합,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경제협동체 도토리회, 얼렁뚱딱 건축조합, 협동조합 행복농장, 초록이등지협동조합
문화교육 공동체	풀무학교, 풀무학교 전공부, 갯골어린이집, 장곡신나는지역아동센터, 밭따도서관, 그물코출판사,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논배미, 꿈이자라는뜰, 마을학회 일소공도
자치공동체	마을활력소

출처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홈페이지(<http://hongseongcb.net>) 자료 기반으로 재구성

3. 실천 : 마을공동체의 판을 새롭게 짜고 모색하기

실천은 공동체가 개발하고 공유하며 유지하는 구체적인 지식으로 명시적, 암묵적 지식이 모두 포함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모든 서사가 포함된다. 각 공동체마다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법은 다르며 실행을 가시화하는 방법 역시 다르다. 실행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성미산 마을과 홍동이 손꼽힌다. 관심에서 나아가 정부의 정책 개입이 생기면서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공공-마을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때 마을활동의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마을에 두되 정책 참여로부터 안정적인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비롯된 사회적자본과 실험, 혁신의 기억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나 확산되고 경제적으로도 마을공동체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1) 성미산 마을 : 변화를 위한 연합

2010년 이후 성미산 마을은 외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처럼 부각되었다. 첫 시작은 2007년 상반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했던 <살고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이다. 그간의 성미산 마을에서 진행된 자율적 활동들이 만들어낸 성과는 국가의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복제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성미산 마을은 마을 안에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했고 그 자체로 생활과 생존의 생태계를 만들어냈다(위성남, 2018). 특히 2012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성미산 마을은 외부와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 자리하게 된다. 성미산 마을이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라는 더 큰 지역 차원에서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실천들과 연결된 것이다.

성미산 마을의 당면 과제는 현대 도시가 마주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의 높은 집값은 주거에 있어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단기간 거주가 중심인 구조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지역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은 존재하지만 지역의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생업을 뒤로 하고 마을공동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지자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인건비를 마련하는 구조로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다 지원이 끊기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생적인 구조를 갖추 것을 요구받는다. 자연스럽게 일자리 사업으로 연결해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마을에서 이러한 구조를 마련하기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성미산 마을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결합하여 성미산 마을이 추진해 온 이상적인 자치를 확장시켜왔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을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였고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8년 7월 개관한 마을회관은 ‘마포구 마을활력소’로 불리는데 서울시가 소유하고 (사)사람과마을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위탁기간 3년 동안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들과의 관계 확장과 마을살이 프로그램들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마을에서 벌어지고 벌일 다양한 활동의 거점으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마을회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행정과 주민 양 주체 사이에서 종종걸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명품자연생태계공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 3차 년도에 걸쳐 100억 원의 예산이 성미산에 투입될 것이 확정되었다. 성미산을 자연숲 그대로 보존하려는 성미산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지형 속에서 어떻게 마을살이를 가져갈 것인지 행동해야 하는 또 다른 선택과 마주하고 있다.

2) 흥동 : 다시 연대와 협력으로

2010년을 전후로 흥동은 다방면의 주민활동과 신생 단체가 증가한 반면, 지역 차원의 단체 간 연대를 이끌었던 유기농업 단체들의 성격 변화로 그 구심적이 약화된 상황이었다(황바람, 2019). 농민단체들의 경제적, 구조적 어려움이 지역과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강한 지역성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원의 상당함에도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새롭게 마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끌어낼 곳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조직 간 소통·연대를 목적으로 주민 간 합의를 거친 ‘지역센터 마을활력소’가 2011년 설립되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로 시작한 마을활력소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마을 지원 조직으로 지역 내 조직 간, 실무자 간의 연대·협력을 도모하는 네트워크 기능은 물론 마을의 사업을 지원한다. 마을활력소는 흥동의 주민소식지(함께 만드는 흥동 마을 뉴스 <마실통신>) 발행으로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고, ‘봄맞이큰장’과 ‘흥동거리축제’를 돕는 역할도 한다. 흥동에서 시작한 흥성 지역화페인 ‘잎’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마을활력소가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경험했던 마을의 자산을 바탕으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원해갈 수 있을지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기구로 활동을 시작한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함께 흥동의 지역단

위 협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확장된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9년 8월 '홍성 군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고 결정해 실행하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2020년 1월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였다.

한편, 그동안 홍동에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를 긍정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졌다(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2019). 홍동에서도 유기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는 협동조합이 있다(태희원, 2017). 지난 2016년 유기농산물 가공·판매,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들의 중심인 초록이동지협동조합이 그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을 쌀 빵 가공시설로 운영하는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후 주민들에게 일꾼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 해볼 것을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참여가 늘었다.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때 오히려 새로운 시도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여지가 생긴다. 지역의 필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며 확장해온 그간의 홍동의 경험이 새로운 주체의 발굴과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마을환경에 대한 이해는 부단히 요구된다. 지난 2019년에는 풀무재단을 설립하여 풀무학교와 홍동의 활동 폭과 내용을 넓히려는 기반을 만들었다. 창립취지문에는 “60년 전에 설립한 풀무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홍동지역에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공동체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 발전에 따라 이와 같은 사업들에 인적, 물질적 수요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풀무학교 설립정신 구현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 내 각종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사업을 대상으로 인적, 물질적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이번영, 2019)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고 진행해온 풀무학교와 홍동은 앞으로도 새로운 요구와 현안을 놓고 마을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V. 결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은 1990년 이후 대안학교, 마을 살이 등 실천적인 시민 활동을 중심으로 확산하였다. 여기에는 관계 맺고 시도하고 탐색하며 자기 존중과 자부심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현실의 성찰이 존재한다. 일상이 관계 맺는 다양한 공적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을 역시 다양한 일상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마을하기’는 생활로 생활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하며, 그 관계는 유연해야 한다. 상호 연대와 참여의 과정 속에서 학습을 매개하는 실천공동체의 특징이 마을 만들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그 규모나 지역성 등에서 비롯된 차이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공동육아공동체에서 시작된 성미산 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반응하며 다양한 소규모 모임과 지역 활동 속에 생활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외부와의 투쟁은 주민-주민, 주민-마을이 서로의 일상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한편 투쟁의 과정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참여와 실천의 필요성을 환기했고 2010년 이후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민관 협력의 구조를 마을공동체 속에 적극적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풀무학교와 마을과의 만남은 홍동의 현재를 구성하였다. 지역교육공동체로서 일과 학습의 연결을 강조하며 실제 이를 실천하는 풀무학교의 정신이 깃든 홍동은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마을이다. 새로운 활동을 지지해주는 마을의 정체성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홍동을 위치시킨다. 홍동의 밀도 있는 협동을 이끈 단체들이 겪는 경제적, 구조적 어려움 속에 새롭게 마을의 구심점을 이끌 단체들이 마을에 자리 잡고 연결되는 과정의 역동성은 마을의 유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천공동체의 관점에서 두 마을은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성미산 마을과 홍동의 마을주민들은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을의 의미를 생성하고 또 성찰하며 이를 부단히 ‘마을하기’에 투영하였다. 이러한 바탕에 마을 주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은 대안적이며 생태적인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켰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단절된 도시의 일반적인 생활양식과 달리 성미산 마을은 자공공(自共公)의 삶을 보여준다. 한편, 소규모 마을모임과 단체, 기관들의 존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마을이 규모화되고 외부에 빈번히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마을 안의 면대면 관계에 비롯된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마을의 의미를 꾸준히 재확인하며 마을공동체운동을 이어왔다. 마을공동체의 지역성 또는 장소성은 중요한 작동요인이지만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흐름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동은 자연스러운 부침을 겪고 있다. 성미산 마을과 홍동은 마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쌓은 경험과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 그리고 갈등을 이어가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마을하기’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마을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마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동안의 마을공동체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에 대한 이해를 쌓은 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하면서 관계망을 키워나가는 경험에서 비롯된 마을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영택, 김정숙(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홍성군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3, 27-49.
- 기영화, 김승현, 김남숙(2013),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김동완, 신혜란(2016), 대안품행 그리고 성미산 스타일, *경제와사회*, 111, 174-202.
- 김대영, 장혜영(2020), 지역 시민사회 정치참여 행태에 관한 연구: 과천시와 마포구 성산동 지역 비교 사례, *담론201*, 23(2), 7-42.
- 김선화, 장승권(20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천공동체 학습: 포토보이스를 이용한 두레생협의 필리핀 공정무역 생산지 해외연수 사례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22(2), 1-30.
- 김세용, 최봉문, 김현수, 이재준, 조영태, 김은희, 최석환(2013),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도시정보*, 371, 3-20.
- 김아영, 장지연, 장승권(20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적자원개발: 한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개발 현황과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이사개발 사례, *인적자원개발연구*, 21(3), 203-228.
- 김이경(2019), 20세기 초 외국모델의 수용부터 21세기 국제협력까지,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II, 가을의아침*.
- 김정숙, 강영택(2013), 농촌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체형성 과정: 풀무학교 전공부 학생들의 교육경험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51-82.
- 김종선(2018), 지역평생학습공동체 남양주 학습동대의 실천적 해석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섭(2014),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 *농촌사회*, 23(2), 173-223.
- 김정섭, 정유리, 유은영(2019), 농촌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협동 조직 활동, *농촌사회*, 29(1), 7-68.
- 김철희, 하혜수(2016),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Woolock의 사회자본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1(1), 79-103.
- 김형미, 염찬희, 이미연, 정원각, 정은미(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 김형미(2016), 안심을 엮어내는 실천공동체 : 코프 아이치의 주민복지활동, *한국협동조합연구*, 34(2), 117-141.
- 김홍주, 이현진, 김철규(2013), 생협운동의 변화와 생협복지주의-울림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5(1), 187-221.
- 마을교육공동체소식 풀꽃(2020), 한국농업을 바꾼 홍동 유기농업, 6, 14-22.
- 마을교육공동체소식 풀꽃(2020), 한국최초 협동조합·62년째 학생들 스스로 운영, 8, 13-18.
- 마을활력소(2016), 45년을 지켜 본 우리마을 이야기, *마실통신*, 99.
- 마을활력소(2017), 2016 우리마을연감, *마을활력소*.

- 박경옥, 류현수(2012), 성미산마을 공동체주거 계획과정의 거주자와 코디네이터의 의견조정 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3(3), 1-11.
- 박경옥, 정지인(2015), 도심 마을공동체 내 거주자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의식,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185-204.
- 박은복, 박정란(2019), 원거주민의 경험을 통한 흥동마을공동체 유지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 연구, 10, 233-271.
- 박윤규, 박상선, 정찬울, 김다솜, 이재훈(2013), CoP 활성화를 통한 지식경영-아이쿱생협의 인트라 넷 활용사례, 지식경영연구, 14(5), 35-54.
- 사람과마을(2012), 2012년 성미산 마을 조사연구 보고서.
- 성미산 마을 만들기모임멋진지렁이·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2005), 성미산 생태마을 만들기 2005 활동보고서.
- 송두범, 김기홍, 박경철, 이관률(2017), 우리는 왜 농촌 마을 흥동을 찾는가, 그물코.
- 양병찬(2008), 농촌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의 형성-충남 흥동지역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3), 129-151.
- 양홍권(2011), 실천공동체(CoP)의 학습 분석틀 구성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구 한국HRD연구), 6(4), 41-59.
- 위성남(2013), 도시 속에서 함께 살아남기: 성미산 마을, 향해문화, 80, 61-78.
- 위성남(2018), 마을은 처음이라서, 책숲.
- 유창복(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창복(2010), 우리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 이경란(2004), 성미산을 아시나요, 창작과비평, 32(3), 384-390.
- 이경란(2013), 마을에서 짜는 배움의 틀과 마을인문학, 사회와 철학, 26, 57-88.
- 이변영(1999), 풀무학교와 흥동 사람들, 월간말, 168-171.
- 정민철(2019), 이상 농촌-흥동면과 장곡면 사례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 정승관(2012), 진정한 삶을 이끄는 ‘더불어 사는 평민, 우리교육, 118-131.
- 정지인, 박경옥(2015),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공동체 특성-충남 흥동지역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4), 105-118.
- 정학균, 성재훈, 이현정(2019), 2019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 실태와 향후 과제, 66.
- 태희원(2017), 충남 농촌여성 지역사회 참여 사례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한국협동조합운동100년사편찬위원회 펴냄, 김창진 책임편집(2019),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교, 가을의아침.
- 흥동마을 사람들(2014), 마을공화국의 꿈, 흥동마을 이야기, 한티재.
- 황바람(2017), 농촌 공동체 협업활동의 사회연결망분석-충남 홍성군 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계획, 23(2), 9-17.

- 황바람(2019), *홍동면을 사례로 한 농촌 중심지 공유 공간과 커뮤니티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익주, 정규호, 신명호, 신중진, 양영균(2016),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Wenger, E.(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손민호, 배을규 역(2007), 실천공동체 COP, 학지사
- 박미현(2011.2.11.), *손길 기다리지 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라*, 한겨레신문.
- 이동고(2019.10.23.), *창원 내서 마을학교와 도시 마을공동체의 출발 성미산 마을,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19288940035>
- 이번영(2019.6.28.), *‘풀무정신’ 구현 공동체사업 지원재단 출범, 홍성신문*.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31>
- 이재덕(2020.8.3.), *‘사표 쓰고 귀농’ 할까...10년차 기자의 사심 가득한 귀농 도전기*, 경향신문.
- 성미산마을 <https://sungmisan.org>
- 성미산학교 <https://sungmisan.modoo.at>
- 엄지혜(2013), *성미산 마을의 공동육아,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22179> (2013.6.5.)
- 젊은협업농장 <http://collabo-farm.com/> (풀무학교와 협업농장 <https://bit.ly/399GEni>)
-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http://hongseongcb.net>
- 홍성군 홍동면 주민자치센터
http://hongdong.hongseong.go.kr/hongdong/sub03_02_01.do

논문접수일 : 2021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21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 2021년 2월 26일